

제주 방언의 낱말 악센트*

박순복(고려대)

<차 례>

- | | |
|------------|--------------|
| 1. 서론 | 2.4 실험 결과 |
| 2. 실험 | 2.4.1 단어별 차이 |
| 2.1. 피험자 | 2.4.2 지역별 차이 |
| 2.2. 실험 자료 | 2.4.3 연령별 차이 |
| 2.3. 실험 방법 | 3. 논의 및 결론 |

<Abstract>

Word Accent of Cheju Dialects in Korean

Soon Bok Park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ord accent pattern of Cheju dialects in Korean and determines whether it varies according to the age as well as the word itself and where the speakers come from. On the basis on the theory of pitch accent, which was suggested by Koo(1993) and Jung(1965) for the Korean standard accent, the fundamental frequency of each syllable is measured. The syllable that has the highest frequency is labelled for 2, while the rests for 1.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that the two syllabic words have 21 accent pattern, while the three syllabic words 121 pattern and the four syllabic words 1211. In addition to this characteristic of accent pattern in Cheju dialects, it is interesting that the older the speakers, the less accent pattern the utterance has as suggested above.

* Keywords: Word accent, Accent pattern, Age, Pitch accent, Cheju dialects.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2-AS2029)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방언의 낱말에 얹힌 악센트를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주방언의 낱말을 음절별로 나누어 음절수에 따른 악센트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착안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제주방언의 악센트를 고저(피치)에 의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인섭(1965)에 따르면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 악센트(pitch accent)이며 한 낱말의 어느 특정 음절에 악센트가 고정되어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구희산(1993)에서도 서울말 악센트는 고저(pitch) 악센트라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무의미 단어를 넣어 다섯 단계의 음역으로 나누어 화자들에게 발음을 시킨 결과 세기와 길이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고저는 음역이 올라감에 따라 일관성있게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희산(1993)에서와 같이 고저가 악센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 낱말을 이루는 음절의 기본 주파수를 측정하여 음절 간 고저를 결정함으로써 제주 방언의 악센트 실현을 고찰하였다.

둘째, 악센트 위치를 결정짓는데 연령이 변이 요소가 되는지 살펴보았다. 악센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다. 즉, 화자의 발성기관, 발화방법, 성별이나 연령차이 등 개인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성분간의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구희산 1993:2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이 요인을 주목하여 특히 차이를 가져오는 한 요인을 연령의 차이로 보고 피험자들의 연령 대에 따라 악센트가 다르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지민제 외(1990)에서도 피험자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고 피험자 20대의 결과가 40대나 50대의 결과와 리듬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제주방언의 낱말 리듬 또는 악센트에 관한 거의 유일한 연구는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을 논한 정승철(1999)에서 발견된다. 그는 음장과 음절구조, 그리고 어형의 첫 음절 초성의 성격 등이 제주방언의 음조실현에 관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2) 그는 제주방언에 두 가지 음조형이 존재하며 그것은 '1-2'형, '1-2-1'형과 '1-1-2-1n'형이라 하였다. 전자는 두 번째 음절이 높은 것이고 후자는 세 번째 음절이 높은 것이다.3) 이러한 음조형은 음절수에 따라 결정되어 2음절어이면 '1-2'가, 3음절어이면 '1-2-1'이 부여된다. 또한 4음절어 이상이면 '1-1-2-1n'형이 부여되며, 제주방언에서 첫 음절 초성이 음조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정승철

1) 그는 일정한 발화단위에 고저와 저조가 연속적으로 부여되는 소리의 높낮이를 음조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음조(tunes)를 문장상의 단위, 즉 억양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2) 고조는 '2'로, 저조는 '1'로 표시하였다.

1999: 546).

이에 본 연구는 정승철(1999)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저의 리듬 패턴을 각각 '2'와 '1'로 표기하여 그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며, 청각에 의한 고저의 판단뿐만 아니라 음성 분석기를 이용하여 제주방언의 낱말에 얹힌 악센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악센트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승철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낱말을 구성하는 첫 음절 초성이 악센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치곡선에 의한 제주방언의 악센트의 특징을 고찰함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정승철에서 언급한 제주방언의 악센트 유형이 본 실험연구와 어떻게 다른지 관찰, 논의할 것이다.

2. 실험

2.1. 피험자

본 실험연구에서 가장 많은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은 피험자를 연령대로 나누어 실험하고자 한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제주방언의 특유한 리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젊은이에서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20대, 50대, 70대의 남녀 각각 32명을 합하여 총 96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는데, 남녀의 비율을 각각 50%로 하였다. 70대의 자료 중에는 80대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80대의 화자는 찾기에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많음에 따라 녹음이 수월하지 못하여 80대의 자료는 그 수가 적었다(화순과 고산 지역의 4명). 따라서 80대의 화자를 70대에 포함시켜 70대의 화자로 언급하겠다.

이들은 모두 제주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들이며 제주도 전역에서 골고루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크게 네 곳으로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로 나누고, 다시 네 개의 하위 지역(총 16곳)으로 나누어 다음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출신의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 (1) 남제주군: 수산, 신평, 의귀, 화순
 북제주군: 고산, 남읍, 북평, 선흘
 서귀포시: 법환, 보목, 토평, 하원
 제주시: 건입, 노형, 도남, 영평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네 지역의 악센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 방언 간 악센트 차이의 유무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다.

2.2. 실험 자료

실험에 쓰인 자료는 제주방언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선정하였다. 음절수에 따른 악센트의 차이를 보고자 음절별로 2음절 4개, 3음절 3개, 그리고 4음절 4개 등 총 11개의 제주방언을 선정하였다. 다음 (2)와 같다.

- (2) 2음절어: 아이, 허벅(물항아리), 갈채(삼태기), 팔뚝
 3음절어: 니커리(사거리), 보리쌀, 갈비깡(갈비뼈)
 4음절어: 호미자루, 마농지시(마늘장아찌), 입주둥이(입), 동녕바치(거지)

(2)의 자료를 보면 첫 음절 초성이 모음, 공명자음, 폐쇄음 등 다양한 소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자료의 선정이 음절 간 균형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령, 3음절어에는 2, 4음절어에 있는 모음이나 /ㅎ/이 없고 2음절어에는 3, 4음절어에 있는 공명자음이 빠져있다. 즉, 각 음절에 해당하는 낱말을 선정함에 있어서 음절 초성을 동일하게 구성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제주방언 중 일상생활에서 제주도민이 가장 빈번히 사용된다고 인식되는 어휘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제주 토박이들에 의해³⁾ 사용되는 전형적이고 독특한 어휘를 선정한 반면, 동일한 음운적 조건을 구성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어의 첫 음절 초성이 악센트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지 그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각 낱말에 얹힌 악센트가 음절 수에 따라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지 비교할 것이다.

자료의 녹음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파형(wave)을 띄워 보았을 때 소음의 정도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를 살펴보면 2, 3, 4음절어 각각 384개, 298개, 384개였으며, 화자 96명(16지역*남녀 2*3개의 연령대)이 각 음절어(11개)를 한번 씩 발화하였으므로 1,056개(11*96*1)의 토큰 중 각 음절의 피치가 잘 계산되지 않은 자료수(90개)를 제외하면 분석에 사용된 총 토큰의 수는 966개이다.

2.3. 실험 방법

녹음은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험자에게 낱말이 써있는 단어 카드를 제시한 후 자연스럽게 읽도록 하였다. 화자들은 2음절부터 4음절어로 순서대로 한 번씩 발화하였으며 녹음자는 최대한의 자연스런 발화를 주문하였다. Sony사의 ECM-MSD1 단일지향성 마이크와 Creative Technology사의 SB0300 프리앰프를 사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직접 녹음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음향 분석

3) 20대의 화자와 나머지 고령의 화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20대의 경우는 ‘동녕바치(거지)’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프로그램인 Wavesurfer 1.7 version의 도움을 받았다.

각 화자의 발화 중 각 음절에 해당하는 낱말 전체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고 각 낱말에 대하여 파형, 스펙트로그램, 피치곡선을 배치하였다. 각 음절의 피치를 알기 위해 모음부분 안정 구간의 중간 지점의 기본 주파수(Fo) 값을 재었다. 낱말의 어느 음절에 가장 높은 피치로 발화하였는지를 알기 위해 편의상 낱말을 이루는 음절 중 가장 높은 기본 주파수의 음절을 '2'로, 나머지 음절들을 '1'로 표기하였다.

2.4. 실험 결과

실험의 결과 음절 수에 따른 각 낱말의 차이에 있어서나 네 개로 구분된 각 광역별 특성에 있어서나, 그리고 20대, 50대, 7·80대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매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각 낱말의 경우를 살펴보자.

2.4.1 단어별 차이

제주방언의 악센트를 각 음절에 따라 2음절 단어, 3음절 단어, 4음절 단어로 나누었을 때 총 낱말의 수는 11개였다. 이 각각의 낱말들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실험방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기본 주파수의 음절을 '2'로, 나머지 음절들을 '1'로 표기하였더니 다음 <표 1>과 같았다.

<표 1> 낱말에 따른 악센트 실현(경우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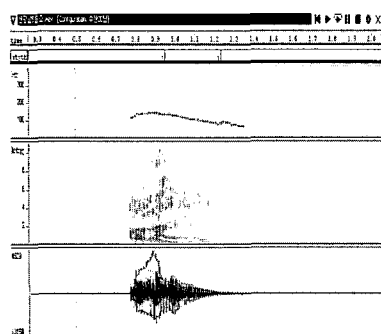
2음절	12형	21형	3음절	112형	121형	211형	4음절	1112형	1121형	1211형	2111형
마이	27	64	니커리	7	66	13	호미자루	5	4	54	26
허벅	14	75	보리쌀	11	68	3	마농지시	6	6	76	2
골채	21	69	갈비짱	16	64	6	입주둥미	5	8	63	12
팔뚝	17	71					동냥바치	6	5	68	4

우선, 2음절 단어의 경우 12정보다 21형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들이 2음절 단어를 발화할 때 앞 음절을 강조하였다는 뜻이다. 이는 정승철(1999)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그는 2음절 단어의 음조형이 '1-2'형이라 했기 때문이다. 또한 4음절 단어의 경우에서도 정승철의 연구는 본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가 4음절 단어에서 '1-1-2-1'형의 음조형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표 1>에 따르면 두 번째 음절을 강조한 1211형이 과반수를 넘는 경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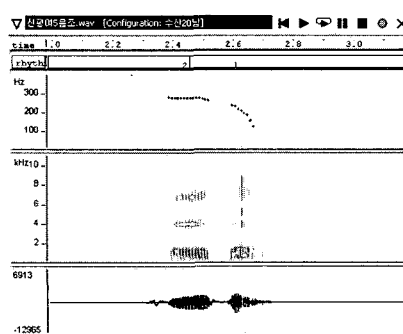
수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3음절 단어의 경우 본 연구가 정승철에서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화자들은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표 1>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각 단어 첫 음절 초성이 악센트의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음절 단어의 경우 첫 음절 초성이 모음, 폐쇄음, 마찰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화자들은 초성의 음성적 성격과 관계없이 첫 음절을 강조하여 발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3)에서 첫 음절 초성이 모음인 경우와 마찰음인 경우, 즉 ‘아이’와 ‘허벅’의 피치를 살펴볼 수 있다.

(3) a. ‘아이’



b. ‘허벅’



(3)은 남제주군에 사는 50대 남녀 각각이 발화한 ‘아이’와 ‘허벅’의 음성자료로부터 피치, 스펙트로그램, 파형을 얻은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첫 음절의 기본 주파수가 두 번째 음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초성의 음성적 관련성을 3음절과 4음절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을 때 결과는 2음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센트 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더불어 첫 음절의 음운적 무게(heavy or light)와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3음절어 중 ‘니커리’, ‘보리쌀’은 경음절(light syllable)로 시작하는 반면, ‘갈비탕’은 중음절(heavy syllable)로 시작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두 번째 음절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2.4.2 지역별 차이

본 실험에서는 연령의 차이로 인한 악센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연령이라는 변이가 보다 의미있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험자 선정에 있어서 제주도를 네 개의 광역별로 나누어 선정하였으므로 이 네 개의 지역(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간 악센트 실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 <표 2>를 얻었다.

<표2> 지역에 따른 악센트 실현(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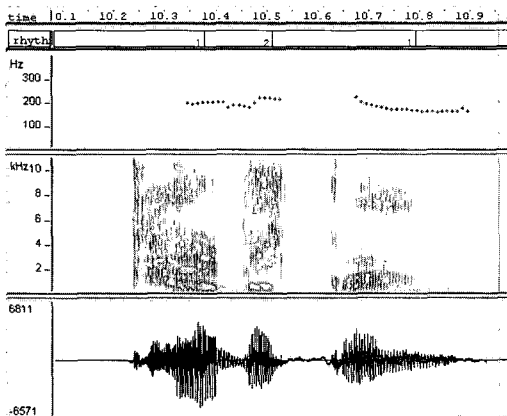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12형	30.8	27.4	14.6	14.4
21형	69.2	72.6	85.4	85.6
112형	22.6	13.4	11.9	6.1
121형	71	80.6	79.7	80.3
211형	6.5	5.9	8.5	13.6
1112형	8.9	11	5.1	0
1121형	6.7	8.8	6.4	4.4
1211형	68.9	68.1	71.8	89
2111형	15.6	12.1	16.7	6.6

위 <표 2>에 따르면 서귀포시 출신의 피험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 출신의 피험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비율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으나 네 지역의 모든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일관된 악센트 실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3, 4음절 단어 각각에 21형, 121형, 1211형의 악센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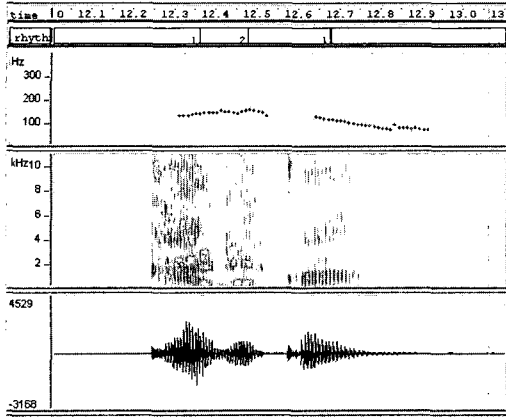
2.4.3 연령별 차이

제주방언의 악센트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대의 음성자료를 비교하였다. 다음 (4)는 각 연령대에서 대표적으로 3음절 단어 중 ‘갈비깡’을 뽑아 그 피치, 스펙트로그램, 파형을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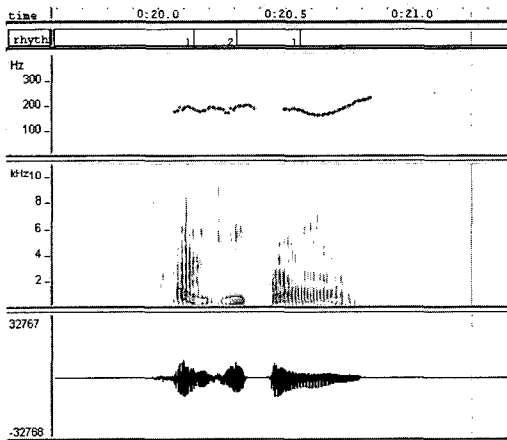
(4) a. 수산 20대 여자



b. 신평 50대 남자



c. 고산 80대 여자



(4)는 각각 20대, 50대, 80대의 화자가 발화한 3음절어 ‘갈비짱’을 나타낸 것이다. 80대의 화자의 경우 노령의 나이 때문인지 스펙트로그램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치곡선을 보면 20대와 50대의 화자에서와 같은 악센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본 주파수를 측정하여 악센트의 위치를 검토한 결과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 다음 <표 3>은 전체 발화수 중에 각 음절에 따라 악센트를 부여한 경우의 수를 보여주며, <표 4>는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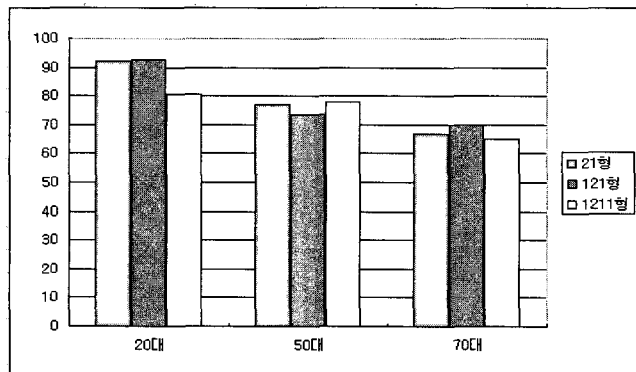
<표 3> 연령에 따른 경우의 수

전체_발화수	20대	50대	70대
12형	111_9	121_28	126_42
21형	111_102	121_93	126_84
112형	78_2	90_13	86_19
121형	78_72	90_66	86_60
211형	78_4	90_11	86_7
1112형	109_0	122_5	120_17
1121형	109_1	122_7	120_15
1211형	109_88	122_95	120_78
2111형	109_20	122_14	120_10

<표 4> 연령에 따른 악센트 실현(백분율)

%	20대	50대	70대
12형	8.10%	16.4	33.3
21형	91.90%	76.9	66.7
112형	2.6	14.4	22.1
121형	92.3	73.3	69.8
211형	5.1	12.2	8.1
1112형	0	4.1	14.2
1121형	0.9	5.7	12.5
1211형	80.7	77.9	65
2111형	18.3	11.5	8.3

위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절에 따른 악센트의 위치는 모든 연령 대에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음절의 낱말에서 화자들은 가장 앞 쪽, 즉 첫 음절을 강조하여 발화하였으며 3음절과 4음절의 낱말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하였다. 이들의 차이가 50대와 70대로 가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표 4와 같은 백분율로 나타내보면 음절수와 관계없이 모든 낱말에서 65%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이 결과를 좀 더 명시적인 그래프로 나타내어 연령에 따라 빈도수가 달라지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 연령에 따른 악센트 유형(백분율)

<그림 1>에서 보이는 악센트 유형 간의 결과는 <표 3>과 <표 4>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연령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음절에 따른 두드러진 악센트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에서 70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3.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낱말 음성자료를 가지고 각 단어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악센트를 실현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실험의 결과는 세 변인에 따라 모두 일관된 결과를 낳았다. 피험자들은 2음절어의 경우 첫 음절을 강조하여 발화하였고 3음절과 4음절어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 화자들은 3음절이 넘는 단어라 할지라도 3음절에서와 같이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절의 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악센트의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의 하나인 정승철(1999)의 연구와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 우선 그의 연구 결과는 청각적 인상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실험의 결과와 비교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의 귀에 의한 판단이 기분이나 상황, 그리고 판단자 개인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도의 문제를 떠나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악센트는 2음절에서 '1-2'형이, 3음절에서 '1-2-1'형이 두드러지며, 마지막으로 4음절에서는 '1-1-2-1'형이 부여된다. 본 연구에서는 4음절어의 경우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정승철의 연구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2음절과 같은 짧은 낱말에서 앞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 비율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정승철(1999)의 연구는 제주방언의 초분절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자료와 음절의 길이에 따른 고저의 형태를 파악한 가치있는 연구라 사료되지만, 그의 연구는 제주시와 남제주군에 속한 피험자 2명만을 대상으로 연구자 본인의 청각적 인상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아쉽다. 그는 또한 논문의 결론에서 '인상적으로 볼 때 제주방언의 음조군은 앞이 높고 뒤가 낮다'(정승철 1999: 553)고 하였다. 만약 제주방언에서 앞이 높게 들린다는 인상이 지배적이라면 오히려 본 실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령의 차이에 따른 악센트 특징이 낱말이나 지역의 차이에 따른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일관된 결과이나, 아쉬운 점으로서 연령 간 비율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제주방언의 특유한 악센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7·80대의 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수의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연령대의 과반수 이상의 화자들이 실험결과로 언급된 특정 유형의 악센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가 고저악센트에 의한 제주 낱말의 악센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실험 연구의 결과는 음절수에 따른 낱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음운적 정보를 기초로 자료를 선정하여 녹음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자료의 수가 적은 반면, 단어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것은 다양한 변수를 주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연구라 간주된다. 제주시에 대한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는 요즘,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과제라 여겨지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구희산, “음성합성의 운율처리를 위한 악센트 연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권, pp. 21-35, 1993.
- [2] 정인섭,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 악센트다”, *중앙대학교 논문집*, 10권, pp.9-50, 1965.
- [3] 정승철,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권, pp.543-54, 1999.
- [4] 지민제 외, “한국어 규칙합성을 위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II”,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권, 2호. pp.613-16, 1990.

접수일자: 2005년 8월 13일

게재결정: 2005년 9월 6일

▶ 박순복(Park, Soon Bok)

주소: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소속: 인천대학교 어학원

전화: 02) 3290-1980

E-mail: sbpark66@hotmail.com